

해방의 길 B

1. 해방이 먼저다

중생하고 난 후 기독교인에게 닥치는 절실한 문제가 성화의 문제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체 Pattern 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생하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를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일평생 이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턱걸이로 간신히 천국에 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죄책에서 해방되었지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칭의로 인해 죄책은 용서를 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면제되어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이런 사람에겐 현재의 삶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정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현재의 삶을 이런 대합실 정도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로 우글 우글 땁니다.

현재의 삶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를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지 않으면, 사냥군의 올무에 새가 걸려 있는 것처럼, 죄의 가시체가 권능이 있게 자신을 휘어 감고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런 것 저런 것 해 보겠다고 출석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라!

그 다음에 네가 네 자유 의지를 활용해 이런 것 저런 것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꺼꾸로 하여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성화를 해보려고 이것 저 것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방 실패하고 좌절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로 해방은 받으려 하지 않고 성화부터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은혜로 해방되어라!

이것이 롬마서 8:1-2 에서 사도 바울의 해방 선언입니다.

우리 롬마서 8:1-2 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해방을 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보려고 먼저 출석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을 받아라!

그 다음에 네가 네 자유 의지를 활용해 이런 것 저런 것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우리 로마서 7:8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7 :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옛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의 가시채에서 해방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 가기 위해선,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면 죄에서도 해방이 따라 옵니다. 죄와 율법은 폐지될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6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습니까?

죄의 제거는 천년 왕국후에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제거됩니다. 그 때까지 사탄은 성도를 훈련하는 도구로 필요합니다. 또 율법은 일점 일획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죽고,
새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2. 예사람의 죽음이 주는 효력

죽음이 주는 효력은, 죽음으로 인해 지배하던 모든 것으로 부터 해방입니다. 죽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빚갚을 의무에서도 면제됩니다.

죽은 사람은 모든 법적 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율법이 더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됩니다.

죄와 율법이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논증 합니다.

로마서 7: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로마서 7: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찌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모세의 율법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의 지배에서 여인이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1. 모세의 율법은 산 사람만 지배한다(주관한다).
2. 모세의 율법은 죽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3.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
4.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5.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6.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다시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롬 8:1).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 God forbid. How shall we, that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죄의 지배가 종료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자(새사람)는 죄와 율법에 대하여 **영원히** 법적 상관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사람으로 산 자는 죄의 권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는 관계가 청산되었습니다.**

3.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옛사람이 죽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끝났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니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벗어 버리라" "입으라" 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말하였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 옛사람은 벗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옛사람은 몸이 아니라 몸위에 걸치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형상위에 인간이 만들어 덧붙인 모든 것의 총칭이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palaios(=old) anthropos(=인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palaios anthropos 를 old person, old man 이라고 번역했지만, anthropos 는 우리 말로는 ‘인류’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alaios anthropos 는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 모든 문화의 총칭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속한 것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속한 모든 문화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이, **개인에게 속한 것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속한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선언합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나아가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 너도 하나님을 따라 죽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말이다.

3.2 그러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어서 땅속에 묻혀 소멸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중지되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 Knowing this, that our old man is crucified with him,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estroyed**¹, that henceforth we should not serve sin.

이 구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죄의 몸이 멸하여” 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예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박혀 죽은 이유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죄의 몸을 효력이 없도록 만들었다**²”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아담 이후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에 속한 새로운 것만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¹. **destroyed** : kat-arg-eh'-o; from 2596 and 691; to be (render) entirely idle (useless), lit. or fig.: - abolish, cease, cumber, deliver, destroy, do away, become (make) of no (none, without) effect, fail, loose, bring (come) to nought, put away (down), vanish away, make void

². (ἵνα καταργηθῇ τὸ σῶμα ὁ ἁμαρτίας, τὸ οὐ μηκέτι δουλεύειν ἡμᾶς τῇ ἁμαρτία
THAT MAY BE MADE INEFFECTIVE THE BODY OF SIN, [THAT] NO LONGER [SHOULD] SERVE WE SIN.)-그릭어가 같은 색깔의 영어로 번역되어 있음

3.3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배경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배경은, 옛사람을 유전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은, 후천적 인격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콜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알콜의 지배에서, 니코틴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니코틴의 지배에서 벗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벗어 버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죄에 중독된 것과 같습니다.

죄는 조상으로부터 실질이 유전된 것이 아니고, 원죄의 전가에 의한 지배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에 의해 그 지배를 모두 벗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성령 충만’ 하여 살 때만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떠나면 또다시 죄가 주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4.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음

4.1 죄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다같이 읽어 보십시오. 우리의 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가 한일이 여기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 : 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0 For in that he died, he died unto sin once: but in that he liveth, he liveth unto God.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 Likewise reckon ye also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unto sin, but alive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 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죄에 대해 우리가 죽어 죄의 지배가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니 그 결과 죄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하는 것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됩니다. 자기의 체험으로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나서 성령의 은혜로 죽은 것이 체험 됩니다. "먼저 믿어지기 위해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 안에서"가 아니면 옛사람이 죽은 것은 확신되지 못합니다. 지속적 성령충만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속적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 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4.2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4] Wherefore, my brethren, ye also are become dead to the law by the body of Christ; that ye should be married to another, even to him who is raised from the dead, that we should bring forth fruit unto God.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각종 죄의 정욕을 일으키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부활과 연합하여 태어난 우리 새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 갈 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 :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3]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Go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로마서 8 :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4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지배를 못합니다.

<결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지속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과 한치도 차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성령충만한 새사람으로 살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